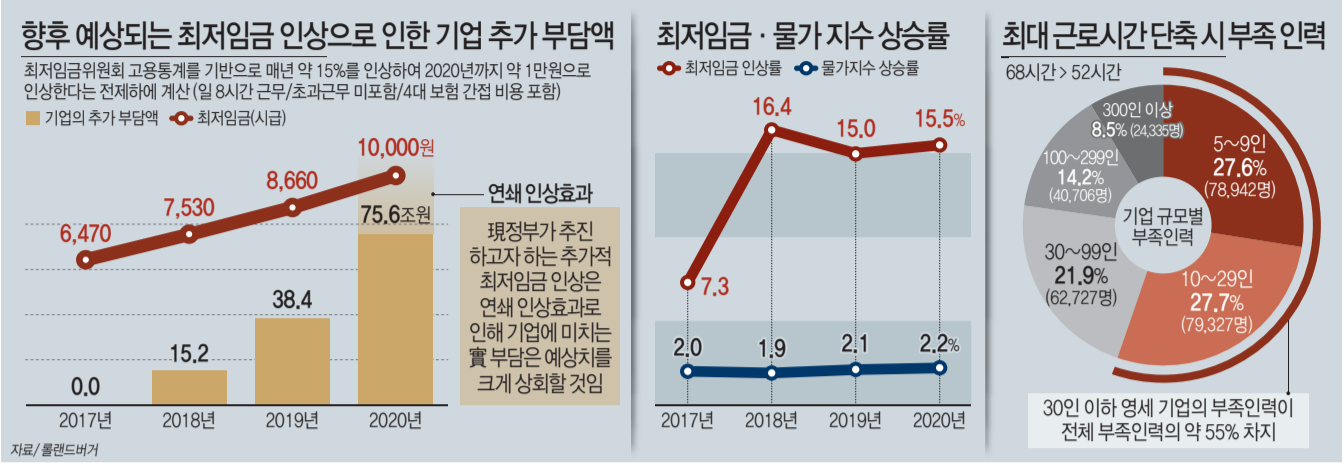


최저임금·근로단축·정규직화 '465兆'짜리 정책

獨 컨설팅사 롤랜드버거 분석
 용역보고서 정부협상 적극 활용
 인건비·매출감소 464.7조 예상
 근무시간 단축 '속도조절' 주문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경우 2020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75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도 포함시키는 등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독일계 컨설팅기업인 롤랜드버거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17일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을 내놨다.

롤랜드버거는 중소기업중앙회 의뢰로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용역을 지난해 진행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 들어 노동 관련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글로벌 컨설팅사의 용역보고서를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롤랜드버거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 해고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노동체계 유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 합당성이 부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근로자 중심의 정책으로 균형감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이 총 46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롤랜드버거는 지난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올랐고, 또

매년 15%씩 상승해 2020년 1만원에 도달할 경우 기업들이 물어야 할 추가부담액도 올해 15조2000억원, 2019년 38조4000억원(최저임금 8660원), 2020년 75조6000억원(〃 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8시간 근무(초과근무 미포함)하고 4대 보험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특히 롤랜드버거는 지난해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의 중간값 대비 6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빈곤선(중위임금 대비 5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정기준을 더욱 명확화해 사용자, 근로자, 공익 등의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되고 시장 변화까지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했다.

근로시간(주당)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빠르게 줄일 경우 영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세금감면, 유연근로활성화, 임금동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은 선례가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단축속도를 연평균 1시간 이하로 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혁신성과와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뤄내야 할 도전의 해"라면서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기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기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허수영 BU장, 부회장 승진

롯데케미칼 정기 임원인사 마무리

롯데그룹이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롯데는 지난 10~11일 진행된 39개사의 임원인사에 이어 17일 롯데케미칼이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적과 성과 중심, 전문성 갖춘 미래 인재 발굴, 젊은 대표이사 전진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임원인사가 단행된 만큼 롯데케미칼 임원인사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두드러졌다.

허수영 화학BU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수영 화학BU장은 1976년 호남석유화학으로 입사하여 롯데대산유화, 케이피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거쳐 2017년 화학BU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롯데의 화학사들이 최고의 경영성과를 달성하면서 허 BU장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롯데케미칼의 미국법인인 LC USA의 신입대표로는 황진구 프로젝트담당이 전무 승진과 함께 선임됐다. LC USA는 미국 화학사 엑시올과 합작하여 연산 100만 t 규모의 에탄 크래커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연산 70만 t 규모의 에틸렌글리콜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1995년 입사한 황 신입대표 내정자는 연구, 생산, 신규프로젝트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미국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롯데는 올해 50세인 황 내정자를 과감하게 전무로 발탁 승진시켜 신입대표로 내정하면서 CEO 세대교체를 통해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부회장

미래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씨텍의 대표이사로는 롯데케미칼 전명진 생산본부장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외국인 임원도 2명 늘어났다.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휴메어 이자(Humair Ijaz) 법인장은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롯데케미칼 타이탄(LC Titan)의 필립 롱(Philip Long) 기획·법무총괄은 성공적인 상장으로 신규투자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승진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외국인 임원은 총 8명이 됐다.

롯데 관계자는 "최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화학부문이 이번 인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내 몸속의 혈액이 흐르는 수도관, 혈압의 건강한 관리!

비타민하우스의 코엔자임NatQ는 항산화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Q10 100 mg
 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코엔자임NatQ 450 mg X 60 캡슐

하루 한캡슐로! 1.간편하게 100 mg의 코엔자임Q10 섭취! 2.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섭취!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식품코너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